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45호 【루계 제24823호】 주체104(2015)년 2월 14일 (토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고 유기항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부장 겸 강사인 조선인민군 장령 유기항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3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동포가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에 13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 *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13일 주조 세계식량계획,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대표부 성원들이 꽃바구니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한평생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으며 누구도 따를수 없는 사상과 령도력으로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광명성절경축토론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로씨야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굴랄레지부소조, 라프토지부소조, 아카키-칼리티지부소조, 뻬루 깔랴오국립종합대학에서 5일과 6일에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통일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 부비서는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정치로 조선의 운명을 수호하시고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걸출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 계시였기에 오늘의 조선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은 반드시 강성국가로 될것이다.

오늘의 복잡한 국제정세는 조선의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힘이 강해야 자기를 지킬수 있다는 진리를 더욱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굴랄레지부소조 책임자는 1960년 8월 25일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지난 세기말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는 조선의 국방력강화와 강성국가건설에서 놀라운 기적을 안아왔다.

조선이 미국과 당당히 맞서며 강성번영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주체선군정치연구 뻬루-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토론자들은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승리만을 떨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원수각하

나는 김정일령도자각하의 탄생 73돐에 즈음하여 각하와 함께 이 뜻깊은 명절을 경축하는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러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수리아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

2015년 2월 11일 디마스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마흐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꽃바구니를 13일 주조 팔레스티나국가 대사관 성원이 해당 부문 일군에게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본사기자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

수여식 진행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김정일청년영예상, 김정일소년영예상이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 소년단원들에게 수여되였다.

수여식이 13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들이 전달된 다음 당의 청년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청년동맹조직을 선군시대 청년전위대오로 꾸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에서 위훈을 떨치고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적인 8개의 초급청년동맹위원회와 20명의 청년동맹일군들, 청년동맹원들에게 김정일청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선군시대의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103명의 소년단원들에게 김정일소년영예상이 수여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선군시대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하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실천강령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접한 각계의 반향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며

조국해방 일흔돐과 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접한 우리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뜻깊은 올해를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면 무엇보다도 당조직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도안에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함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우리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의 기관차인 과학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구장세멘트공장의 현대화를 하루빨리 끝내는것과 함께 경공업공장들의 기술개건사업을 힘있게 다그쳐 생산의 거세찬 동음으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봉쇄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림으로써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굳건히 담보해나가도록 하겠다.

도당위원회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투쟁을 계속 줄기차게 벌려나가도록 당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가겠다. 특히 농촌당조직들이 지난해농사에서 큰 덕을 본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 올해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르도록 하겠다.

모든 사업의 성과여부는 대중의 정신력을 어떻게 발동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도당위원회일군들은 자신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 자각을 안고 오늘의 총공격전의 앞장에서 달려나가며 대중을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숨결도, 발걸음도 같이하는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키워 도앞에 나선 과업들을 본때있게 해제끼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헤쳐온 우리 인민들에게 천만가지 복을 안겨주시려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릴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도록 하겠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만건

총공격전의 앞장에 선 전위투사로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석탄공업성 일군들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창조된 혁명신념, 혁명투지, 혁명배짱으로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승리의 기발을 높이 휘날릴 드팀없는 의지가 차넘치고있다.

공동구호에는 석탄산의 높이이자 전력증산이며 경제강국건설의 속도라고 지적되여있다.

그렇다.

오늘 총공격전의 진군속도는 우리 석탄공업부문 일군들과 탄부들의 투쟁성과에 달려있다.

석탄전선의 모든 지하막장마다에서 석탄을 꽝꽝 생산해내여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이 공동구호의 구절구절마다에서 세차게 맥박치는 당의 전투적호소를 최후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투쟁과 삶의 지침으로 여기고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올해의 방대한 석탄증산목표를 능히 돌파해나갈수 있다.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우리 일군들이 영예로운 기수, 전위투사로 되자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함께라면 기쁨도 슬픔도 시련도 영광이라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1970년대 기초축성시기 일군들처럼 살며 투쟁하고 혁명군대의 지휘성원들처럼 전투조직과 지휘를 화선식으로 박력있게 해나가야 한다.

공동구호의 요구대로 국가경제발전전략에 기초하여 합리적이고 효률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우고 실리보장사업, 계획화사업,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겠다.

뼈를 깎아서라도 탄부생활문제를 풀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후방사업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며 생산수자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우리 시대의 참된 지휘성원이 되겠다.

공동구호의 정신대로 살며 투쟁한다면 우리는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게 될것이며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백승을 떨칠것이라는것을 확신하며 성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총돌격해나가겠다.

석탄생산은 념려말라!

이것이 공동구호의 정신을 받들고 산악처럼 일떠선 우리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다.

석탄공업상 문명학

선군청년전위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겠다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즈음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는 지금 우리 수백만 청년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총진군대오의 척후대입니다.》

공동구호에는 우리 청년들이 뜻깊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당의 믿음직한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를 남김없이 떨침으로써 10월의 대축전장으로 제일먼저 가슴펴고 들어설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다.

우리는 청년동맹안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고히 세우는데 동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 청년동맹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청년동맹, 경애하는 원수님의 청년전위대오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겠다.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며 특히 5대교양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지는 사상적근위대오로 만들겠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은 수백만 청춘들의 심장에서 분출되는 애국충정의 웨침이다.

우리는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청년운동사적관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들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훌륭히 완공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선군청년전위의 위용을 높이 떨치겠다.

청년동맹조직의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것은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여 청년동맹을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쇠소리나는 전투대오로 꾸려나가겠다.

우리는 청년동맹을 총진군대오의 척후대로 내세워주시며 청년운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뜻깊은 10월의 경축광장으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보무당당히 들어서겠다는것을 다시한번 굳게 결의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장현철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되새길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온 나라의 산들을 푸른 숲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키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는 자책감으로 얼굴이 뜨거워지는것을 금할수 없다. 한편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국토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나라의 산림자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면서 산림황폐화수준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였으면 벌거벗은 산림을 그대로 두고 이제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고, 전후복구건설시기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선것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산림복구전투를 벌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겠는가.

우리는 공동구호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겠다. 벌거벗은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 일은 해당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만 해야 할 일이 아니며 한두해동안 해서 되는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전후 온 나라가 떨쳐나 재더미를 털고 일떠서던 그때처럼 산림복구를 자연과의 전쟁으로 간주하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야 한다.

짧은 기간에 온 나라를 수림화하자면 우리 산림총국 일군들이 나라의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전반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산림복구를 위한 투쟁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면서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심는 방법을 완성하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조국산천을 푸른 숲 우거지게 하겠다.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총국장 김명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철저히 관철할 결의에 넘쳐있다. —평양기관차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불면불휴의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 농업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3(2004)년 9월
← 비날론솜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2월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월

새형의 CNC공작기계들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2월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한 성진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2월

안변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9(2000)년 11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11월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6월

대흥단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감자작황을 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10월

장강군 읍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9월

강원도의 토지정리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2월

천출위인의 위대한 선군령도업적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수여해드린 3돐에 즈음하여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신 백두의 선군령장

주체101(2012)년 2월 14일!

이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를 삼가 드리였다.

3년이 흘렀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이 가슴뜨겁게 안겨와 격정을 금치 못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업흑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가려는것은 자신의 신념이라고 피력하시였다.

선군!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나 필승의 무기로 삼아오신 선군, 바로 그 선군의 길을 하늘땅이 변한다 해도 끝까지 가시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주체83(1994)년 12월 31일, 력사의 총성이 울리였다.

어느 한 사격장에 나가시여 자동보총과 기관총의 만탄창을 다 푸신 위대한 장군님,

하늘땅을 뒤흔들며 울려퍼진 그날의 총성은 위대한 선군령장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선언한 메아리였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가 조선이 장차 어느 길로 나갈것인가를 주시하던 때였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이 어려운 시련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제우선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시였다.

력사의 총성을 울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께 경의를 표시하시고 인민군부대를 찾아 길을 떠나시였다.

그 길은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를 선언한 길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령도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진 선군장정, 그 길처럼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길은 력사에 일찌기 없었다.

력사에서는 장정이라는 말이 간고한 투쟁의 길을 표현하는 의미로 써왔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선군장정과 같이 그렇듯 간고하고 시련에 찬 길이 있어본적이 있었던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결사의 각오와 의지로 조국과 인민앞에 가로놓인 시련을 앞장서 헤치시였다.

선군장정천만리!

지금도 외워보면 그이께서 헤쳐오신 길이 너무도 멀고 너무도 험난하여, 그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신 그이의 헌신의 자욱이 피뜨겁게 어려와 격정을 금할수 없다.

주체102(2013)년 6월 오성산에로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성산과 철령은 선군령도의 증견자, 상징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오성산과 철령을 찾고찾으시였던 그 나날들을 깊은 추억속에 더듬으시였다.

주체87(1998)년 8월 어느날 련일 계속되는 장마비로 질척해진 진창길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성산에로의 현지시찰의 길에 나서시였다.

칼벼랑길을 한치한치 톺으시며 오르신 전선시찰의 길,

위험한 순간순간이였다.

긴장으로 온몸을 땀으로 적시던 일군들이 더는 오르실수 없다고 간절히 아뢰였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지에 인민군군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내가 고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궂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전사들의 생활을 잘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령길을 오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어느 한 뜻깊은 자리에서 자신께서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냈다고, 오성산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간고하였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가 잊혀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선군정치를 계속해나가는 한 우리 인민은 자주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며 강성국가를 일떠세워 남부럽지 않게 잘살게 될것이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은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라고 힘있게 강조하시였다.

참으로 선군장정천만리는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로고가 자욱마다에 어려있는 위대한 혁명장정이였다.

국력은 곧 군력에 의하여 담보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가 있었기에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였던 역경이 순경으로 전환되고 우리 공화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더욱 강화되여 우리 조국은 백두산대국으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52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8.25경축연회에서 하신 연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금을 오늘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애국애민의 의지로 온몸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불패의 군력과 군민대단결의 힘을 마련해주심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의 존엄을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

지금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받아안고 온 나라 천만군민은 얼마나 걸출한 선군령장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자랑찬 길을 힘차게 걸어왔는가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

혁명의 총대를 틀어쥐시고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시고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원쑤도 범접할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신 김정일대원수님의 위대한 업적은 천만년 길이 칭송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철 혁

불패의 군력을 강화하시던 나날에

사상사업에서의 기본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군대의 한 부대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군인들에 대한 사상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인회관에도 들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군령도업적이 반영된 교양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며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주체83(1994)년 12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우리 령공에 침입한 미제침략군 정찰직승기가 조국의 초소를 철벽으로 지켜가고있는 한 평범한 인민군군인에 의하여 통쾌히 격추되였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에서 이번에 미제침략자들에게 우리의 본때를 단단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원쑤들이 우리 조국강토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가차없이 쳐부셔야 한다고 힘주어 선언하시였다.

적들과의 대결에서 언제나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야 한다는 자신의 심정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후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신 자리에서도 피력하시였다.

우리 군대는 강경하고 단호한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항일무장투쟁시기부터 내려오는 우리 군대의 전통이다, 우리는 누구든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데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치 않는다, 또 용서란 있을수 없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

오늘 위대한 선군령장의 슬하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적들의 침략책동을 걸음마다 무자비하게 짓부시며 언제나 승리만을 떨치고있다.

우리 군대의 전통

군인들의 요람

어느해 10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의 중대병실을 돌아보실 때였다.

군인들이 생활하는 병실안의 모든것이 정규군대맛이 나게 정돈되여있었다.

병실이 규정의 요구대로 정돈되여있는것을 두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족하시여 이만하면 괜찮다고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군인들의 생활정형을 알아보시였다. 부대지휘관들로부터 군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병실은 집단주의와 동지애가 키워지는 요람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요람, 새겨볼수록 부대지휘관들에게는 병실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안겨왔다.

병실은 단순한 생활장소만이 아니라 군인들을 집단주의생활방식에 철저히 적응시키고 혁명적인 사랑과 동지애로 보다 친밀하게 결합시키는 요람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본사기자 림 정 호

언제나 병사들속에 계시며

험준한 전선길,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세계가 2월의 이 강산에 력력한 빛을 뿌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는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보람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헤치신 전선길은 애오라지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며 그 길에서 더없는 보람과 락을 찾으신 애국헌신의 길이다.

주체84(1995)년 1월 1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중대를 찾으시였다. 다박솔로 뒤덮인 포진지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안부도 물으시고 그들의 훈련도 보아주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혁명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잡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고 큰 힘을 얻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는 앞으로도 전호가의 흙냄새도 맡고 인민군군인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포연탄우도 함께 헤치는 최고사령관이 되려고 합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인 철령과 친히 야전차를 밀며 오르신 오성산의 칼벼랑길, 준엄한 최전연의 판문점초소길과 풍랑사나운 초도에로의 배길 등 불철주야로 이어진 우리 장군님의 전선길은 새벽이면 또 전선으로 떠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래일이 벌써 화요일인데 날자가 빨리도 지나간다고, 일요일이 없이 일하는데도 늘 시간이 모자란다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시였다.

뒤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데서 삶의 보람과 긍지를 느끼군 한다고 하시면서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궂은날, 마른날 가림이 없이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켜가는 전선길은 나의 삶과 투쟁의 전부입니다. 전선을 끊임없이 찾아가는것은 나의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토록 열렬하고도 숭고한 뜻으로 선군혁명천만리길을 헤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절세위인상은 력사를 감동케 하고있다.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

불멸의 화폭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전선에서 전선으로 종횡무진하시며 조국을 수호하시고 인민을 보살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한 뜻과 업적을 력사에 전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인 선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대원수로 높이 모신 경사스러운 날을 맞이하는 우리 병사들의 가슴가슴은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헤치시며 뜨거운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던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에서 제일로 아끼고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더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체86(1997)년 11월에 있은 일이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른아침부터 동해안지구의 인민군부대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날이 저물자 일군들은 이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로에 오르실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그이께서 아직 더 가볼데가 있다고 하시는것이였다.

일군들이 초조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장 겨울이 닥쳐오는데 우리 전사들이 겨울나이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가자고, 우리 전사들이 바다가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수고하는데 밤이 되였다고 들리지 않으면 되겠는가고 하시며 바다가에 위치한 한 인민군구분대로 차를 몰게 하시였다.

여름이면 무더워서 땀을 흘리고있을 병사들을 걱정하시고 겨울이면 병사들이 추워할세라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사랑의 조치

구분대에 도착하시여 교양실과 병실, 식당을 돌아보시며 병사들이 군무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지휘관들에게 텔레비전을 정상적으로 보는가고 물으시였다.

정상적으로 본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아무래도 자신께서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다시며 다시 교양실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화면의 질과 음질상태를 가늠해보시며 만족을 표시하시던 그이께서는 교양실의 온도가 병실의 온도보다 낮다고, 이왕이면 뜨뜻한 방에서 텔레비죤을 보게 하면 군인들이 아주 좋아할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텔레비죤수상기는 병실로 옮겨지게 되였고 병사들은 집에서처럼 더운방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게 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인민군대에서 텔레비죤수상기를 교양실에 설치하는것은 관례로 되여있었다.

군인들을 위해 필요하다면 관례도 깨고 규정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뜻이였다.

진정 우리 병사들을 위하시는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무한대의 세계였다.

강 원 남

절세의 위인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외국인들이 강조

조국의 부강번영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목소리가 외국의 벗들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인도네시아 붕카르노종합대학 총장 박사 수나르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김정일각하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력을 지니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의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과 세계자주화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다.

한평생 나라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신 그이의 로고에 대하여 말하자면 끝이 없다.

위인중의 위인이신 김정일각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나민족민주대회 부총비서 죠지 라우쏜은 조선이 오늘과 같이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는것은 장구한 기간 당과 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 김정일대원수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대원수각하는 세계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생하실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아랍사회부흥당 수리아지역지도부 고등교육부장 파이루즈 무싸는 이렇게 토로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사회주의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만년초석을 마련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조직력과 전투력이 강한 당으로, 로숙하고 세련된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련이은 자연재해로 인한 간고한 시련의 나날에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가장 고귀한 유산으로 길이 빛을 뿌릴것이다.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크리스테르 룬드그렌은 김정일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선군정치로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행복,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신 그이께 최대의 경의를 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블라고웨쉔스크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협회 위원장 아.이.돈첸꼬는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 거창한 변혁을 이룩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진두에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그이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고계시기에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352호 주체104(2015)년 2월 10일

모범적인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집단으로 자라났으며 맡겨진 혁명과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한 단위들에 3대혁명붉은기를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3대혁명붉은기

평양곡산공장
득장송배전소
개천시 람전협동농장 제2작업반
선천군 삼성협동농장 제8작업반
구장고치생산사업소 대풍작업반
로하간석지건설사업소 1직장
신천고치생산사업소 알생산작업반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자재공급과
위원군 락민협동농장 제4작업반
초산군 안찬협동농장 잠업제1작업반
이천군 읍축산전문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
2.8비날론련합기업소 품질감독소
함흥시 동흥산구역 풍호협동농장 농산제3작업반
량강도혁명전적지관리국 답사차사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자동차직장
평양조차장객화차대 도착렬차검사중대
해주철길대 청단철길소대
평양고려호텔 경리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오늘 우리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불세출의 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속에 중국의 연변땅에서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로 성대하게 경축하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전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한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백두의 사상과 혈통을 굳건히 계승하시며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으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광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가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온 겨레의 다함없는 축복을 받으시며 빨찌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애오라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사회주의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온넋을 초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시며 력사와 인민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시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조국땅우에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펼쳐놓으시였습니다.

온몸이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 되시여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혁명령도의 전과정을 눈물겨운 《야전복》,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쪽잠과 훼기밥》, 《야전리발》과 같은 시대어들로 수놓으시며 우리 나라를 그 어떤 원쑤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핵강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것은 김정일대원수님께서 민족과 시대앞에 쌓으신 업적중의 커다란 업적으로 됩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족분렬의 고통이 세기에 세기를 이어 지속되는것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며 반세기이상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분렬의 장벽우에 통일의 열기를 부어주시고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이 실현되는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으심으로써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사회주의와 정의의 위대한 수호자이신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저서들을 발표하시여 인류에게 사회주의의 필승의 보검과 신심을 안겨주시고 사회주의《종말》을 떠드는 세계반동들의 머리우에 준엄한 철추를 내리시였으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먼곳에 있는 자식일수록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다심한 심정으로 언제나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에게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사업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따뜻이 보살펴주시였습니다.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주체적해외동포운동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저희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그마한 일을 했을 때에는 김일성훈장과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표창, 조국통일상, 국기훈장 제1급을 비롯한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도 안겨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속에 사는 저희들의 마음속생각도 깊이 헤아리시여 은정어린 조국방문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랑의 전용비행기까지 보내주시여 백두산지구를 아무런 불편도 없이 참관하도록 하여주시였습니다.

진정 자애로운 어버이의 따사로운 그 손길은 이국땅에 살아도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르고 존엄높은 김일성민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살아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고 자양분이였으며 영원한 생명의 젖줄기였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숭고한 헌신으로 자욱자욱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업적은 겨레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며 더욱 강성번영할 선군조선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광명성절을 가장 뜻깊게, 가장 경사스럽게 경축하면서 저희들은 동서고금 그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수령복, 위인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김일성, 김정일민족의 특전과 행운을 언제나 가슴깊이 간직하고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유훈을 받들어 해외동포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놓을 의지를 다시한번 굳세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하늘아래에 사는 재중동포라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 책임감을 항상 명심하고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항일혁명전적들을 정성다해 보위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한 교양사업을 보다 참신하게 벌려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따르고 받드는 주체의 해외동포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해 동포들이 사는 곳이라면 중국땅 어디에라도 찾아가 조직에 묶어세워 그 력량을 확대강화해나가겠습니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당부대로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해외의 성새, 방패가 되며 원수님의 위인상을 맨 앞장에서 선전하는 기수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분분초초 매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곁에 우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있다는 무한한 행복감과 희열로 가슴끓이며 원수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만들기 위한 거창한 애국사업에 헌신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일데 대하여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서 선봉대가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녕은 온 겨레와 세계진보적인류의 간절한 소원이며 희망입니다.

전체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동포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조국의 부강번영과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체104(2015)년 2월 9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제19차 김정일화축전 개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이 13일 평양에서 개막되였다.

축전장인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는 《제19차 김정일화축전》, 《광명성절경축》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세워져있었으며 공화국기와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여있었다.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주체조선, 선군조선의 휘황한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축전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사상리론활동, 정력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조국을 일심단결된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여 강성번영의 억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축전장에 꽃바다를 펼쳐놓았다.

축전장에는 무력, 성, 중앙기관들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였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그리고 주조 여러나라 외교대표부, 국제기구대표부들, 외국의 친선 및 련대성단체들, 인사들이 태양의 꽃들을 축전에 내놓았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뜨거운 지성에 떠받들려 아름답게 피여난 수만상의 김정일화들과 갖가지 진귀한 화초들로 축전장은 황홀경을 이루고있었다.

김기남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해외동포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시부대표가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창도 조선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위원장이 개막연설을 하였다.

그는 전체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맞이하는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제19차 김정일화축전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번 축전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며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여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 절세위인을 열렬히 흠모하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내외에 과시하는 대정치축전이라고 강조하였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만민의 한결같은 흠모심에 떠받들려 태양칭송의 꽃으로 태여난 때로부터 세계를 격동시키고 인류의 마음을 완전히 매혹시키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절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무한한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축전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조국해방 일흔돐, 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축전개막을 선언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인칭송의 대화원을 펼친 축전장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시) 정일봉의 봄노을

김 정 삼

아득히 물결쳐오는
천리수해우에
눈부신 아침해를 안아올리며
정일봉의 하늘가에 노을이 불탄다

밀림에 피여난 서리꽃들도
억만송이 환희의 불꽃으로 타는가
온 천지를 불태우는 저 노을은
아, 정일봉!
불멸의 존함이 내뿜는 열과 빛인가

바라보면 볼수록 눈굽젖누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안고
쉬임없이 달리던 야전차의 불빛
전선길의 하많은 그 모닥불들이
저 하늘에 흐르는것만 같아

아, 이 강산에 만복의 봄을 불러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에
야전복자락 날리시던 어버이의 모습
력사의 장설우에 불길처럼 타오르던
그 위대한 생의 빛발로
하늘땅을 뒤덮는 정일봉의 봄노을이여

저 노을속에
강성부흥의 봄을 맞이한 내 조국
선경거리 창가마다 눈부신 해빛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숨결인양
온 강산에 울려가는 CNC의 동음
장군님의 억센 기상을 안고
만리우주에 한껏 뻗친 선군조선의 존엄

정일봉의 노을빛에 물들어
우리의 바다는 황금해로 출렁이고
철령아래 사과바다는 아름다와라
마식령산발에서 안아보는
대화봉의 아침은 장쾌하여라

애국의 정과 열로 고동치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에서 타오른
행복의 봄노을
이 조선의 천만년미래를 안고
무궁한 영광 떨치는 승리의 봄노을

노을이 불탄다
우리 원수님 손길아래
만복의 열매 무르익는 이 강산
강성번영의 새 아침을 부르며
정일봉하늘가에 노을이 불탄다
장군님의 축복의 미소가
새 세기의 하늘가에 찬연히 빛발친다

(신) 혁명의 고향집

전 승 일

삼천리를 한품에 안으려
조종의 성산에 주추를 놓았더냐
이 나라 하늘을 억만년 떠받들려
백두산악을 반석으로 삼았더냐

흰눈덮인 천고밀림에 뜨락을 펼친 집
조선의 영원한 봄을 불러
광명성 솟아오른
백두산밀영고향집!

이 뜨락에서 시작된
빨찌산아들의 자욱을 따라
굽이쳐 흘러온 백두의 세월이여
백두의 피줄기로 민족의 명맥을 이어놓은
혁명의 고향집이여

붉은기를 날리며
끌없이 들어서고 들어서는 대오…
이 나라 후손들의 가슴마다
신념의 산악을 세워주며
성스런 투쟁의 전구로 바래주나니
목숨같은 백두의 혁명철리가
천만심장에 철철 끓어라
열백번 쓰러져도 다시 일떠서는
백절불굴의 기개 여기서 맥박친다

이 뜨락에서 시작하는 삶의 억센 발걸음들
천지풍파 막아서도 주저가 없으리라
고향집하늘가에 비꼈던 그날의 무지개를
강성국가의 아름다운 자태로 강산에 펼치리라

행운이여라
이 나라 아들딸들의 행복이여라
흰눈처럼 순결한 백두의 넋을 주고
백두처럼 굳건한 혁명가의 신념을 주는
이 소중한 고향집을
정신적기둥으로 안고 산다는 것은

오, 천만의 심장에
백두의 혁명정신을
혈맥처럼 줄기차게 이어주는 성산의 집
태여나고 태여나는 이 나라 후손들을
백두산을 닮은 투사들로 키워내는
혁명의 영원한 고향집이여!

(신) 백두산에 칼바람 분다

김 영 남

휘 휘-
아득한 천고의 밀림에
폭풍쳐 내닫는
백두의 눈보라 눈보라

이 백두전장에서
신들메를 조이고 떠나신 먼먼길
우리 장군님의 한평생의 길에
어느 하루 한시도 멎은적 없는
백두의 눈보라 백두의 칼바람이여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을 안고
걷고 또 걸으신 전선길
눈비젖은 야전복자락에 불어 불어
빨찌산 적기가를 울려주던 칼바람

전선길의 산발마다
폭풍이 되고
우뢰가 되고
번개가 되여
원쑤들의 정수리에 철추를 내린
선군혁명의 총대바람

장군님의 후더운 정을 안고
이 땅을 따스히 감싸안아
향기그윽한 과수의 바다를 펼치고
행복의 무릉도원을 꽃피우며
선군의 절경을 수놓은 만복의 백두산바람

울리고있어라
시련의 모진 광풍을 맞받아 헤쳐온
우리 장군님의
백전백승의 공격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퍼득이는
백두의 칼바람소리

천만이 틀어쥔 서리발총검우에
구름을 헤가르며 우주에로 날으는
위성의 장쾌한 불줄기에
세월을 주름잡아 날으는
선군룡마의 나래우에

오, 선군의 붉은기를
더 높이 휘날려주는 백두의 칼바람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의 심장에
넋이 되여 흐르는 장군님의
영원한 숨결

아, 빨찌산강행군길에
장군님 한평생 안고 사신 칼바람
우리 원수님 따라 나아가는
천만의 대오앞에
백두산칼바람 분다
최후승리를 부르며 폭풍친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한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3일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에서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농근맹, 관계부문 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락랑구역농근맹위원장 전금철, 안악군 오국협동농장 관리위원장 황윤남, 만경대구역 만경대남새전문농장 농장원 리인화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 결정서를 높이 받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뜻깊은 광명성절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신것은 김일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기약해준 민족의 대통운이였으며 인류자주위업의 밝은 전도를 열어놓은 세계사적사변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로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혁명적변혁을 이룩하신 희세의 정치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라고 격찬하였다.

우리 당을 사상과 령도의 유일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빛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천세만세 받들어모시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를 높이 받들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한 총공격전에서 농업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선진적인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황금벌의 새 력사를 대대손손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사회주의증산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온 나라 협동벌이 당의 농업정책관철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부강조국건설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우리 교실문학상 학생소년들에게 수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을 맞으며 우리 교실문학상이 학생소년들에게 수여되였다.

13일 청년동맹회관에서 진행된 수여식에서는 강반석고급중학교 문위성, 모란봉구역 인흥초급중학교 정원미, 덕천시 덕성초급중학교 김복을 비롯한 410명의 학생들이 우리 교실문학상을 받았다.

이들이 창작한 단상 《내 마음 달리는 곳》, 동시 《백두산의 쌍무지개》, 《봄의 고향집》 등은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우리 학생소년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날마다 전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소식에 그리움과 맹세의 마음을 따라세우며 강성조선의 역군으로 억세게 준비해나가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진실하게 반영한 수필 《고마움에 대한 생각》, 동시 《소원》, 《우리 꾸는 고운 꿈은》, 《구름다리 놓고파》 등도 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 경축행사도 마련해주시고 조선소년단 제7차대회에도 참석하시여 학생소년들에게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대를 이어 전해갈 마음을 격조높이 노래한 동시 《소년단대표증》, 동시초 《그리움의 날개》, 일기글 《잠 못 드는 밤》을 비롯한 작품들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소년들은 분초를 아껴가며 학습하고 좋은일하기운동을 적극 벌리고있는 자기들의 모습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속에 날에날마다 그 면모가 일신되고있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도 동심에 담아 시적으로 형상하였다.

우리 교실문학상수상자들은 앞으로 공부도 잘하고 좋은 글도 더 많이 창작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끊없이 충직한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억세게 준비해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제19차 김정일화축전장 참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이 13일 제19차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뜨거운 지성을 바쳐 아름답게 피운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은 그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참관을 마치고 손님들은 자기들의 소감을 토로하였다.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참으로 훌륭한 축전장이다.

김정일화축전장에 올 때마다 새로운 감흥을 받게 된다.

꽃송이와 색갈이 더 커지고 붉어졌다는 느낌이 강렬히 든다.

아마도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그리는 조선인민의 경모의 감정을 담았기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축전은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조선의 모습과 절세위인을 흠모하는 조선인민의 숭고한 사상감정을 잘 보여주고있다.

수령과 인민의 불패의 일심단결은 모든 승리의 근본요인이다.

이만 무스타파 아브두 아흐마드 에짚트아랍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세번째로 김정일화축전장을 참관하게 된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을 가보았지만 이런 꽃축전은 처음 본다.

영생하시는 김정일각하에 대한 조선인민의 경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잘 알수 있었다.

전시된 꽃들에는 김정은원수각하의 령도밑에 김정일각하께서 념원하시던 모든것을 반드시 실현하려는 조선인민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끼얏띠싹 깨오반딧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는 감상록에 이곳에 전시된 김정일화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축전장이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다,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부강조국건설위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썼다.

또한 이날 손님들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참관하였다.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공연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한 녀맹일군들과 녀맹원들의 경축공연 《2월은 태양조선의 영원한 봄입니다》가 13일 녀성회관에서 진행되였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녀맹일군들과 평양시안의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3중창과 합창 《2월은 봄입니다》, 《우리의 장군님은 위대한 선군령장》으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시이야기 《내 나라의 새벽》,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할 행복과 번영의 활로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희세의 선군령장들을 높이 모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을 구가한 종목들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내 나라의 창창한 미래가 열린 뜻깊은 2월의 명절은 태양조선의 영원한 봄명절임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안았다.

어버이장군님께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끊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며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손길아래 풍성한 열매로 주렁지는 내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노래한 민요제창 《철령아래 사과바다》, 가야금과 장고병창 《바다 만풍가》는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으로 만들며 가정과 일터, 거리와 마을을 보다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는데 뜨거운 애국의 일념을 바쳐갈 녀성들의 드높은 결의를 반영한 기악5병창 《가화만사성》과 제창이야기 《감나무마을》은 관람자들에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었다.

시와 노래 《인민은 일편단심》,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로 끝난 공연은 어버이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일편단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충정다해 받들어갈 온 나라 녀성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성,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성, 중앙기관예술소조종합공연이 13일에 진행되였다.

인민문화궁전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국가과학원, 전력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대외건설지도국을 비롯한 30여개 단위의 정무원들이 출연하였다.

공연장소들은 백두의 억센 신념과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의 백승의 력사를 창조하시고 후손만대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한 그리움과 한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최룡해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양형섭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들에는 합창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매혹과 흠모》, 어은금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 북과 합창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 남성대중창 《백두의 말발굽소리》, 시와 남성중창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새시대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열렬히 칭송하였다.

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선군령장에 대한 불타는 그리움을 비롯한 많은 단위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였다.

선동시와 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 기타병창 《우리 앞날 밝다》, 시와 합창 《그이 없인 못살아》는 관람자들에게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태양민족의 미래는 휘황찬란하다는 확신을 안겨주었다.

숭고한 애국관을 지니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헌신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구가한 남성중창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에》, 노래이야기 《그 마음 애국이야 그 사람 애국자야》, 이야기와 노래 《지하전초병의 영예》 등의 공연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당정책을 결사관철해나가는 총공격전의 기수, 전위투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여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시와 합창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합창시와 합창 《백두산의 눈보라》로 끝난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 인민문화궁전에서 –

태양을 따르는 천만군민의 마음 뜨겁게 흐르는 우리 생활

한없는 그리움속에 울려가는 봄의 노래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 뜻깊은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이 나라의 조국강산에 노래가 울린다.

…

인민의 영원한 봄의 고향에
다함없는 축원이 물결칩니다
백두의 태양을 길이 받들어
무궁토록 빛내여갈 2월은
봄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창조의 힘찬 동음으로 광명성절에 드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해가는 수많은 혁신자들, 총대를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병사들의 마음속에서도 노래가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합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는다.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인민행렬차에서 새벽을 맞으시는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여기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온 나라 강산에 굽이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맞으며 광명성절경축 중앙사진전람회와 중앙미술전시회, 영화상영주간이 개막되여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젖어들게 하고있다.

수도의 성, 중앙기관들은 물론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위인칭송의 노래, 총정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퍼지고 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9차 김정일화축전준비사업은 또 얼마나 활발히 진행되였던가.

축전준비로 들끓은 수많은 단위들의 온실마다에서는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셔갈 충정의 마음들이 그대로 자양분이 되여 불멸의 꽃들이 활짝 피여났다.

수도의 수많은 가정들에서 정성껏 가꾼 위인칭송의 꽃들도 축전장에 황홀경을 펼쳐놓았다.

전국각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충정의 한마음으로 불멸의 꽃전시회준비사업에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바치였다.

량강도와 자강도, 함경북도와 황해북도 등 나라의 방방곡곡에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인칭송의 꽃바다, 열화같은 흠모의 꽃바다가 펼쳐졌다.

그 한송이한송이 꽃마다에 어버이장군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싶은 우리 인민들의 불타는 소원이 다 비껴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찬눈길 헤치시며 찾으신 온 나라의 가정들과 굵은비 맞으시며 들리신 내 조국의 일터들, 험한 령 넘으시며 찾아가신 조국의 방선 초소들마다에 어리여있는 어버이장군님의 끝없는 그 은정,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고 하시며 베풀어주신 뜨거운 그 사랑을 우리 인민은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할것이다.

그 수많은 사랑의 이야기 가운데는 일터를 찾아주신 위대한 장군님께 닭고기를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올리는 로동자를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신 이야기도 있고 새 보금자리에 살림을 편 제대군인가정을 찾으시여 벽에 매달아놓은 메주덩이들을 바라보시며 장을 맛있게 담그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야기도 있다.

우리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을 위해, 이 땅우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을 실현하시기 위해 현지지도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손길에 의하여 인민은 그 언제나 따스한 봄날에 살고있다.

하기에 그리움의 2월을 맞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격정은 더더욱 뜨거워지고 가슴가슴은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할 맹세로 용암처럼 끓고있는것이리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어려있는 2.8직동청년탄광의 탄부들과 너와 나 가슴속의 그 소원 풀어주려 우릴 찾아 장군님은 꼭 오실거야라고 격정속에 노래부르며 탐구의 낮과 밤을 이어가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2.16과학기술상을 수여받은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연구사 박선희,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 소장 최성룡동무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농사일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 아니 온 나라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기 위해 끊임없는 선군령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계시여 위인칭송의 노래, 총정의 노래는 세세년년 끝없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현경철

불멸의 꽃에 비낀 지성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정성으로

해마다 뜻깊은 광명성절을 맞으며 진행되는 평안남도김정일화전시회장을 돌아보는 사람들속에서는 감탄의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군 한다.

《언제 봐야 김정일화를 키우는데서는 개천시를 따르지 못하겠구만.》

개천시를 다녀온 일부 사람들은 그 고장의 토질이 꽃을 키우기에는 그리 좋지 못하다고 말하군 한다. 그러나 개천시에서는 해마다 김정일화를 아름답게 피워 2월의 명절을 뜻깊게 장식하고있다.

리응식, 안성건, 오금옥 동무들을 비롯한 개천시 인민위원회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먼길을 걸으며 김정일화의 생육조건에 맞는 부식토를 날라오기도 하고 온실에서 낮과 밤을 이어가기도 하면서 김정일화를 더욱 아름답게 피우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불멸의 꽃을 더욱 붉게 피워가는 이들의 지성이야말로 돌우에도 꽃을 피우는 충정이 아니겠는가.

마을의 원예사

해마다 2월이 오면 강원도 원산시 장촌동 26인민반에서 사는 리경수, 남승희동무들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마을에서 사는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 녀인들과 아이들을 비롯하여 남녀로소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들부부가 정성껏 키운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보기도 하고 꽃재배기술을 배우기도 하면서 저저마다 꽃모를 가져가기도 한다.

리경수, 남승희동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화를 키우도록 하기 위해 알뿌리도 구해다가 나누어주군 하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들부부를 가리켜 온 마을을 충정의 화원으로 가꾸어가는 원예사부부라고들 한다. 이들부부가 김정일화를 키우기 시작한것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들에 의해 시안의 많은 가정들에는 지금도 해마다 2월이면 불멸의 꽃이 활짝 피여난다.

처녀의 아름다운 마음

뜻깊은 광명성절이 다가올수록 량강도인민위원회 로동자 리혜경동무는 아예 퇴근을 잊은것 같았다.

해마다 광명성절이 오면 도에서 진행되는 김정일화전시회를 자주 돌아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후 리혜경동무는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자기 손으로 꽃을 가꾸리라 결심다지였다.

그래서 그는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김정일화를 정성껏 가꾸기 시작하였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꽃의 생육온도를 보장하기 위해 애쓰는 처녀의 뜨거운 지성으로 기승을 부리는 찬 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더욱 활짝 피여났다.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사는 그의 마음처럼…

리신향

수필 못 잊을 사랑의 새벽길

아마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새벽길도 마다하지 않는것이 어머니들의 하나같은 심정일것이다.

자식들의 뒤바라지로 제일 늦게 자리에 눕는것도 어머니들이고 그 자식들의 길차비를 위하여 제일먼저 단잠에서 깨여나는것도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이 자식위해 지새운 밤, 자식위해 걸은 새벽길을 우리 다 헤아릴수 있겠는가. 바로 이 땅의 수천만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열화와 같은 정과 사랑을 안으시고 애국헌신의 새벽길을 끌없이, 쉼없이 걸으시며 후손만대 영원무궁할 인민의 행복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오는 2월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는 조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다 바쳐 일하는것을 가장 큰 행복과 영광으로,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상에 우리 장군님처럼 새벽길을 많이도 걸으신 위인은 없다.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차디찬 새벽공기에 한밤의 피로를 씻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영상이 어려오는것만 같다. 질은 새벽어둠을 헤가르며 달리던 야전차의 동음이, 고요한 새벽대기를 울리던 인민행렬차의 기적소리가 들려오는것만 같다. 사랑하는 병사들과 인민들이 보고싶으시여 한밤을 지새우신채 새벽 일찍 떠나시던 그 길에서 훼기밥마저 건너신 적은 과연 그 얼마였던가.

오늘도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새겨진 눈물겨운 추억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2월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한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찾아오시였을 때는 이른아침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창조물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의 생산공정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였다. 그날 공장의 일군들은 동행하여온 수행성원으로부터 새벽 2시가 넘도록 집무를 보신 장군님께서 밤길을 달려 공장에 찾아오시였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아침 9시가 훨씬 지나서야 공장을 떠나시는 장군님을 바래워드리며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한밤을 지새우신 우리 장군님께서 공장을 돌아보시느라 아침식사마저 건너시였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이것은 단지 대홍단감자가공공장 로동계급의 마음속에만 간직된 추억이 아니다.

주체비료가 쏟아질 그날을 한시라도 앞당기시려 강행군으로 먼길을 주름잡으며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을 맞이하던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일군들의 심장속에도, 새벽안개 흐르는 판문점에서 뜨거운 오열을 삼키며 소리없는 환호를 올리던 전초병들의 마음속에도 뜨겁게 간직되여있다.

우리 장군님 남먼저 걸으신 그 새벽길을 따라 번영의 대통로가 열리였고 조국의 천리방선은 억척의 성새로 더욱 높이 솟아올랐다. 하나의 공장이라도 더 찾아보고 한명의 병사라도 더 만나실수 있는 시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귀중한 한초한초가 바로 우리 장군님의 휴식과 맞바꾼 그 모든 새벽들에 있었던것이 아니겠는가.

오늘도 한편의 가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있다.

…

이른새벽 우리 일터 제일 먼저 찾으시고
훼기밥 드시면서 먼길을 떠나시네
…

정녕 내 나라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고 온 나라 인민들에게 천만복을 다 안겨주신분은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새벽길을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걷고 또 걸으신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이 더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며 살아갈 그날을 하루빨리 안아오시려는 철석의 의지가 우리 원수님의 그 새벽길에 력력히 어려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웅심깊고 따사로운 사랑이 아름다운 노을로 피여오르는 그 새벽길을 이 나라 천만군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며 대를 이어가며 인민사랑의 전설로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우리가 취재길에서 만난 심혜선동무는 뜻밖에 낯익은 녀성이였다.

지난해 12월 어느날 밤 만수대언덕에서 만났던 녀성, 그때 그는 이름 석자를 묻는 우리를 일별하며 총총히 걸음을 놓았었다. 그도 그때가 돌이켜지는듯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 어줍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심혜선동무는 《이 나라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고 했을뿐입니다.》라고 한마디 했을뿐이였다.

우리는 그가 일하는 사업소의 한 일군을 만나서야 취재수첩의 한 갈피를 채울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정치적신념으로 간직되고 혁명적량심과 도덕적의리에 기초하여 생활화될 때 가장 순결하고 공고한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평천구역량정사업소에서 로동자로 일하는 심혜선동무의 생활에는 굳어진 일과가 있다.

퇴근길이면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고 동상주변관리사업에 깨끗한 마음을 바치는것이다.

두해전 1월 1일 그는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게 되였다.

새해 조국강산에 울려퍼진 제야의 종소리에 이어 진행된 모란봉악단 신년경축공연,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꿈결에도 그리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뵙게 되였다. 꿈만 같았다. 평범한 로동자에 불과한 자기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에 성공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나란히 한자리에서 그토록 크나큰 영광을 지녔다고 생각하니 가슴속에 솟구쳐오르는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새해 첫아침 그는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우러러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이 나라의 충직한 딸이 되겠습니다.)

그는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아 깨끗한 충정을 바치며 하루일을 총화하고 새 결의를 다지군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퇴근후의 저녁일과는 떼여놓을수 없는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였다. 멀리 출장길에 있어도 저녁이면 그의 마음은 만수대언덕에 올랐다.

그 나날에 그는 말은 일에 대한 책임성, 집단에 대한 사랑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사업소의 본보기로, 종업원들의 거울로 떠받들리우게 되였다.

지난해 가을 어느날 저녁 사업소에 식량하차작업이 긴급히 제기되였을 때였다.

퇴근시간이여서 사업소에서는 일군들과 남자들로 일을 시작하였었다. 바로 그속에서 심혜선동무를 발견한것은 하차작업이 끝난 뒤였다.

모여드는 눈빛들 앞에서 《나도 주민들의 식량공급을 책임진 한사람이 아닙니까.》라는 말을 남기고 어디론가 걸음을 옮기는 그를 보며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뜨거워지는 마음을 금할길 없었다. 깊어가는 밤에 그의 발걸음이 만수대언덕으로 향하고 있다는것을 그때는 몇몇의 일군들밖에 알수 없었다. …

그가 지난 기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사업에 몸바쳐온것도,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위해 기울여온 혈육의 정도 퇴근길에 비낀 충정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

사업소일군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우리의 가슴에는 심혜선동무가 남긴 한마디의 말이 뜨겁게 파고들었다.

《이 나라의 자식된 도리를 다하려고 했을뿐입니다.》

신현규

위대한 장군님께 올린 선물식물들을 정성껏 가꾸어가고있다.
—중앙식물원에서— 본사기자 찍음

최근날씨의 특징과 예견되는 날씨

뜻깊은 올해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최근 날씨의 특징과 예견되는 날씨를 잘 알고 그에 맞는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1월은 가장 추운 달이였으나 올해에는 대부분 날씨가 푸근하였다.

소한과 대한추위도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찬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약하고 남쪽에서 비교적 더운 공기가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1월평균기온은 -6.3℃로서 평년(-8.1℃)보다는 1.8℃ 높았으며 지난해(-6.2℃)보다는 0.1℃ 낮았다.

월강수량은 8.4mm로서 평년(12.6mm)보다 4.2mm 적었으며 지난해(5.2mm)보다 3.2mm 많았다.

1월의 눈내림량을 보면 백두산밀영 94㎝, 랑림 48㎝, 세포 36㎝, 삼지연, 장강 30㎝의 눈이 내리였다.

서해안의 평양, 평안남도에서는 14~15㎝, 평안북도, 황해북도에서는 11~13㎝의 눈이 내리였다.

앞으로 2월 중순부터 3월 상순까지 우리 나라는 주로 남서쪽에서 흘러드는 더운 공기의 영향을 받아 푸근한 날씨가 계속되겠으나 2월 중순에는 북쪽에서 흘러드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한두차례의 약한 추위가 있을것으로 예견된다.

평균기온은 2월 중순에 북부내륙지방에서 -9.4~-6.2℃, 그밖의 지방에서는 -1.1~1.1℃로서 평년보다 0.5~1.5℃ 높겠으며 하순에는 북부내륙지방에서 -8.5~-4.4℃, 그밖의 지방에서는 -1.7~1.4℃로서 평년보다 약간 높을것으로, 3월 상순에는 북부내륙지방에서 -5.2~-1.2℃, 그밖의 지방에서는 0.1~3.3℃로서 평년보다 0.7~1.3℃ 높을것으로 본다.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2월 중순에 3~9mm로서 평년정도이겠으며 하순에는 2~8mm, 3월 상순에는 3~13mm로서 평년의 70~80%로 적을것으로 예견된다.

지난해 100년래의 왕가물로 하여 전반적지역의 물량이 매우 적어졌다. 특히 서해안지역의 물량은 더 줄어들었다.

예견되는 날씨를 보면 올해봄에도 여전히 강수량이 적을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농촌경리부문에서는 올해농사에 쓸 물확보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할것이다.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소 실장 김문욱

대가정의 륜리, 미덕의 향기

걱정이 없어진 사연

성천강구역 성천동 67인민반에 살고있는 한길순로인의 심중에는 며날줄 모르는 걱정이 있었다. 평양외국어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손자 박신일이 앓지나 않는지, 생활에서 애로되는 것은 없는지…

그의 이런 걱정은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손자였던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방학을 맞으며 집에 온 손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근심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였다.

대학의 일군들과 교원들이 자기의 학습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준다고 눈물이 글썽하여 들려주는 손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길순로인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손자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줄 기념품까지 마련해준 그 다심한 인정미는 또 얼마나 감동적이였던가.

보석과도 같은 마음

얼마전 보통강구역 대보동 12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 김정혜동무의 집으로 보통강련판판리국 로동자 최경옥동무가 또다시 찾아왔다. 최경옥동무를 반갑게 맞이하는 김정혜동무의 얼굴에는 감동의 빛이 력력히 어려있었다.

최경옥동무를 알게 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몇해이던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였지만 처녀시절부터 자식을 가진 어머니가 된 오늘에 이르는 18년간 최경옥동무는 누가 보건말건 한 영예군인을 위하여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직장일을 하는 가정부인의 몸이지만 자주 찾아와 구미에 맞는 음식도 안겨주고 밤깊도록 집안일까지 말끔히 해주군 한다.

언제인가 발에 꼭 맞는 새 신발을 안겨주면서 하루빨리 일어나 대지를 활보하기 바란다고 말할 때 김정혜동무는 고마움의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한길순로인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울먹이며 말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어디 가나 친혈육의 정이 넘치는 인간사랑의 화원이라고.

사심을 모르고 변함이 없는 최경옥동무의 마음은 진정 보석과도 같은것이였다.

언제나 청춘의 기백으로

지난 1월 어느날 연안군 읍 157인민반에서 사는 우정혜로인은 가정에서 품들여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인민군군인들에게 보내주었다.

어느 한 단위의 지배인으로 사업하던 20여년전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우정혜로인은 원군사업을 꾸준히 하여왔다. 이 나날에 그는 전국원군미풍열성자대회와 전국경공업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였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 년로보장을 받고 집에 들어왔지만 우정혜로인은 변함없는 애국충정으로 원군길을 이어가고있다.

그의 고향은 공화국남반부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그는 어린 나이에 인민군군인들의 등에 업혀 북으로 들어와 공화국의 품에 안기여 자랐던것이다.

그 고마운 품을 위해 인생의 말년에도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우정혜로인을 사람들은 누구나 존경한다.

본사기자 홍성철

이런 사람이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대동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로동자 정미봉동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은 모든것의 주인으로 된 인민대중이 굳게 단결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자각적으로 일한다는데 있습니다.》

평범한 로동자의 이름이 일군들과 동지들로부터 《우리》라는 부름속에 불리운다는것은 그 사람이 집단에 없어서는 안될 성실하고 헌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것이다.

평안남도 대동군 김일성화 김정일화온실 로동자 정미봉동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몇해전 이곳 온실에 배치된 정미봉동무가 김정일화재배사업을 맡아나선것은 그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였다.

절세의 위인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이 대동땅에도 만발하게 하고싶은 열망뿐이였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재배기술을 터득해나갔으며 불같은 정열을 안고 꽃을 가꾸었다.

수백상을 헤아리는 김정일화 화분마다에 빠짐없이 번호를 써붙이고 매 화분들에 따르는 물량이며 비료주는 량 등을 깨알같은 글자와 부호로 일일이 기록해놓은 재배일지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세심하고 지극한 정성을 기울이고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지난해 겨울 어느날 지배인 리인렬동무는 퇴근한줄로 알았던 정미봉동무가 밤늦도록 김정일화화분들에 꽃송이지지대를 세워주는것을 보게 되였다.

꽃송이마다에 정성스레 지지대를 세워주는 그의 얼굴로는 땀방울이 줄줄이 흘러내렸다.

《지지대를 세우는 작업은 래일 하기로 했으니 어서 집에 가보오.》

이렇게 권하는 리인렬동무에게 정미봉동무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말했다.

《꽃송이들이 점점 커가는걸 보니 어디 마음을 놓을수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말하며 일손을 놀리는 정미봉동무를 바라보는 리인렬동무의 눈앞에는 한해전 겨울 예상치 않게 온실온도가 내려가면서 꽃송이들이 망울진채로 떨어지려고 할 때 눈물을 흘리며 뛰여다니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일을 되새겨보며 리인렬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동무의 그 진정에 의하여 이 꽃들이 활짝 피여날거요.》

이렇듯 뜨거운 지성속에 꽃송이들이 앞을 다투어 피여나기 시작했으며 뜻깊은 올해의 광명성절을 맞으며 도에서 열리는 김정일화전시회에 정미봉동무와 집단의 정성이 어린 200여상의 김정일화가 출품되게 되였다.

그는 이렇게 집단의 기수가 되여 맡겨진 혁명임무수행에 충실하였을뿐만아니라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동지들을 위해 진정을 바쳤다.

갓 배치된 제대군인이 결혼식을 할 때에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이불이며 부엌세간도 마련해주었고 종업원의 안해가 해산했을 때에는 친정어머니의 심정으로 산모를 돌봐주는 정미봉동무를 두고 종업원들 누구나 우리 정동무라고 부르며 따른다.

이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닌 정미봉동무가 대동군 읍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김광혁동무를 위하여 혈육의 정을 바쳐오고있었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이곳 온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가.

그때부터 이곳 온실의 전체 종업원들도 정미봉동무와 함께 특류영예군인과 혈연의 정을 이었다. …

《우리》라는 부름속에 집단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정미봉동무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한다.

정미봉동무와 같이 《우리》라는 친근한 부름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의 사회주의가 그토록 아름답고 일심단결의 대가정이 더욱 화목한것이라고.

승철진

경사스러운 2월의 경축무대를 환희롭게 펼칠 한마음으로 훈련에 열중하고있다.
—빙상관에서—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광명성절경축 《2월의 봄 음악회》 미국에서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2월의 봄 음악회》가 8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음악회장소는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모여온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재미동포들과 유엔주재 우리 나라 상임대표부 성원들 그리고 로씨야, 중국, 벨라루씨, 우즈베끼스딴, 이딸리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외교관들, 미국인사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음악회는 우륵교향악단 단장 리준무가 지휘하는 관현악 《장군님께 영광을》으로 시작되였다.

순간 장내는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헌신으로 김일성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이였다.

무대에는 관현악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통일무지개》, 남성독창 《산으로 바다로 가자》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음악회는 관현악 《발걸음》으로 절정을 이루었다.

관람자들은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한몸에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 높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만방에 빛내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담아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터치였다.

【조선중앙통신】

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지 말아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데 대한 절세위인의 애국의 호소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을 끊없이 격동시키고있다. 조국해방일혼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남조선에서도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지향에 도전하면서 반통일폭압에 미쳐날뛰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파쇼적인 《종북》팡풍을 일으켜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통일애국열의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보안법》을 휘둘러 그들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파쇼당국이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 황선을 구속하고 재미동포인 신은미를 강제추방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남조선당국은 황선을 구속한것도 부족하여 그의 남편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 공동위원장 윤기진까지 소환조사하며 복닥소동을 피웠다. 그뿐이 아니다. 파쇼광들은 얼마전 전교조에 소속된 4명의 교원이 선군정치와 주체사상 등의 내용을 담은 《리적표현물》을 가지고있었다고 떠들면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다. 더우기 경악을 금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현 집권자의 추동밑에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이미 《리적단체》로 규정된 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며 강제해산시키기 위해 《보안법》개악에까지 달라붙고있는 사실이다.

한편 극우보수언론들은 《진보에 빙자한 북편향활동》이니, 《체제수호》니 하고 고아대면서 진보적단체들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을 비호두둔하고 극구 부추기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사회각계는 당국이 비리성적인 《종북몰이》에 열을 올리고 보수언론들이 그에 날개를 달아주고있다고 개탄하고있다. 그야말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통일민주세력들을 가차없이 탄압처형하던 《유신》독재시기를 무색케 하는 《21세기 마녀사냥》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책동은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념원을 무참히 짓밟고 북남대결을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반역행위이다.

남조선의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하는것은 오랜 기간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당하며 외세가 몰아오는 전쟁의 위험속에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정당한것이다. 외세의 식민지지배와 력대 반역통치배들의 파쇼통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어왔다. 민족의 분렬로 하여 부모와 자식, 형제들사이에 아직도 생사여부를 모르고 살고있으며 미제침략군에 의해 존엄을 짓밟히우고 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다. 외세가 없는 통일된 조국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함께 모여앉아 행복하게 살아보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더우기 민족의 재부가 동족대결로 계속 헛되이 소모되고 침략적인 외세에 의해 조국강토에서 핵전쟁발발의 위험마저 고조되는것을 절대로 허용할수 없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된 사활적 문제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인민들이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피타게 웨치며 애국투쟁의 한길에 나서고있는 것이다.

통일운동은 누가 누구를 해치기 위한것이 아니라 북과 남이 화해하고 단합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본태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따라서 남조선인민들이 련북통일을 지향하며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것이다. 특히 보수집권세력의 악정으로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가 깡그리 유린당하는 남조선인민들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찬양하며 련북통일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당연한것이다.

하지만 남조선보수패당은 인민들의 자주적요구를 반영한 각계층의 통일애국투쟁을 《종북》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다. 통일운동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는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심히 해치는 부정적후과만을 초래한다. 지금 남조선당국이 더욱 사납게 휘두르고있는 《보안법》은 동족을 《반국가단체》로, 통일민주세력을 《북에 추종》하는 《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닥치는대로 탄압하는 반통일적이며 반인권적인 대결악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이 시대와 력사의 버림을 받고 이미전에 사라졌어야 할 《보안법》을 더욱 파쇼적인것으로 만들어 통일민주세력을 동족과 억지로 결부시켜 탄압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도발이다. 지금 북남관계가 대화에로가 아니라 파국에로 치닫고있는것도 남조선당국의 파쇼적인 《종북》소동, 《보안법》을 앞세운 광란적인 폭압과 중요하게 관계된다.

남조선집권자들도 말로는 《통일》과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떠들고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각계층 인민들의 정당한 조국통일운동,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야수적탄압으로 겨레의 불타는 통일열망을 억누르고 북남관계를 갈수록 파국에로 몰아가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위해서도 《유신》독재를 되살리며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는 남조선괴뢰당국의 망동은 무조건 중지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을 민주화하고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것은 현실의 절박한 요구이다.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애국운동을 광범히 벌리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나선다. 특히 남조선에서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각계 단체들이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남조선에서 자주통일기운을 더욱 고조시킬수 있고 북과 남의 동포들이 서로 손잡고 대화와 협상, 련대련합하여 민족공동의 목적을 위해 뜻과 힘을 합칠수 있다.

남조선당국의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은 조국통일운동발전의 근본장애로 된다. 남조선에서 지금과 같이 살벌한 파쇼독재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통일론의와 활동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래왕과 접촉, 교류와 협력을 범죄시하며 조국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이며 파쇼적인 법적, 제도적장애물들이 계속 존재한다면 언제 가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을 이룩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오늘 남조선에서 통일민주세력이 《종북》으로 몰려 무차별적인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현실은 민주화실현을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투쟁하고있는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광분하면서 아무리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 운운해도 그것은 실속이 없는 빈말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은 절박한 민족사적과제이다. 그 실현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당국이다.

남조선당국은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려거든 내외여론을 기만하는 《대화》타령을 작작 늘어놓고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부터 취해야 할것이다.

리 성 호

두길중 한길을 택해야 한다

지금 괴뢰들이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감히 압살하려고 미쳐날뛰는 조선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쑤 날강도 미제와 저들의 대미추종광기에 대처한 우리 군대의 자위적인 훈련에 대해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터무니없이 걸고들면서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지난 7일 괴뢰공군비적들은 독자적인 전투비행훈련이라고 하는 《비상하는 독수리》를 광란적으로 벌려놓았다. 10일에는 강화도해안에서 미국과 괴뢰해병대의 수색대대들이 련합해상침투훈련을 감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북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싸일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11일부터 13일까지 괴뢰국방연구원에서 가상적인 각본을 상정하고 그에 따른 정치군사적대응절차를 숙달완성하기 위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라는것도 벌리였다. 괴뢰들은 이 연습에서 미국과의 《억제 및 대응태세점검》에 대해 떠들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가뜩이나 악화되고있는 북남관계를 파국의 극단에로 몰아가는 매우 분별없는 망동이다.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되고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하였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동족대결과 외세와의 북침핵전쟁공조만을 추구하는 괴뢰패당의 본성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바로 그로 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임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가 또다시 파국에로 치닫고있다.

괴뢰들이 진심으로 북남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새해벽두부터 북침불장난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 긴장을 격화시킨 저들의 분별없는 처사에 대해 심중히 돌이켜보고 우리의 요구대로 외세와의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중지했어야 옳다. 하지만 괴뢰호전광들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미국과 야합하여 반공화국도발을 계단식으로 강화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서고있다. 한주일 남짓한 기간 남조선에서 감행된 전쟁연습소동들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우리의 전략적거점들과 핵심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능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불장난들이였다. 《비상하는 독수리》훈련을 놓고보아도 그것은 괴뢰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과 《F—15K》, 경공격기 《FA—5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피스아이》 등 40여대의 전투기들이 투입된 속에 력대 최대규모로 감행되였다. 미국과 괴뢰해병대가 우리측 지역과 가까운 강화도해안에서 조단위로 은밀히 침투한 후 목표를 타격하고 탈출하는 훈련을 벌린것도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이라는것은 더우기 도발적이다. 이 연습은 그 누구의 《핵, 미싸일사용징후》가 나타나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을 동원하여 선제타격을 가하는 《맞춤형억제전략》에 따른것이다. 보다싶이 괴뢰패당은 말끝마다 《대화》를 떠들면서도 속으로는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불뭉치를 들고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 결국 남조선당국자들이 운운하고있는 《대화》요, 《관계개선》이요 하는것은 북침전쟁도발에 환장하여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저들의 흉악한 몰골을 가리우기 위한 미사려구에 불과하다.

이런 전쟁미치광이들과 열백번 마주앉은들 파연 북남관계문제가 해결되고 화해와 단합이 실현될수 있겠는가. 남조선괴뢰당국이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중대제안에 북침전쟁연습의 강화로 도전해나섬으로써 북남관계는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고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괴뢰패당에게는 북남관계의 운명에 대한 책임감이 꼬물만큼도 없으며 오로지 추구하는것은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무력으로 해치는것뿐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을 대화상대가 아니라 침략의 파녁으로 삼고 외세의 더러운 앞잡이가 되여 신성한 조국강토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는 매국역적패당을 추호도 용서할수 없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말이 있다. 만일 괴뢰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미국에 계속 추종하며 군사적대결의 길로 한사코 나간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피할수 없을것이다.

미제의 종국적멸망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최후공격명령만을 기다리고있다. 괴뢰당국은 우리와의 최후결판에 나섰다가 비참한 종말을 고하든지 아니면 군사적도발을 전면중지하고 동족끼리 북남관계문제를 해결하는데 나서든지 두길중 한길을 택해야 한다.

심 철 영

생존권을 위한 굴함없는 투쟁

남조선에서 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로동자들의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지난 1월 금속로조와 삼성그룹 산하회사의 수천명의 로동자들이 서울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공동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화, 정리해고철폐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의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또한 2월 2일에는 민주로총과 남조선로총이 당국의 반인민적인 로동정책을 반대하는 공동투쟁결의식을 서울에서 가지였다. 결의식에 참가한 각 산하로조대표들은 《정부》가 로동시장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은 물론 전체 로조가 강력한 항의투쟁에 나설것이라고 선언하며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결의문에서 그들은 《정부》의 로동시장구조개혁이 전체 로동자들의 생존권을 심히 위협하고 비정규직로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고달프게 할것은 명백하다고 하면서 당국의 반역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동투쟁조직을 뭇고 투쟁을 전개할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이어 발언한 대표들은 로동자들에게 일방적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은 오직 투쟁으로써만 막을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로동자들의 로동권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고 당국과 전면전을 벌릴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어느 한 대표는 현 《정권》이 새해벽두부터 정리해고조치를 늘이기 위한 악정을 추진하고있다고 단죄하면서 로동시장구조개악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수십만의 조합원들이 전면적인 총파업에 돌입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모임에서는 남조선당국에 보내는 10대공동요구안이 작성되고 총파업을 위한 투쟁방향이 론의되였다.

6일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의 주최하에 여러 로조단체들도 비정규직제도, 정리해고제도의 철폐를 요구하여 《국회》앞에서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수백명의 경찰들이 동원되여 로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였으나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종교단체의 한 대표는 당국은 《국회》앞에서의 행진이 무서워 경찰들을 내몰고있다고 하면서 로동자들의 행진이 두려우면 비정규직제도와 정리해고제도를 당장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로동자대표는 비정규직을 만들고 정리해고를 일삼는 재벌들을 당국이 두둔해주고있다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비정규직로동자들의 투쟁은 천백번 정당한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괴뢰경찰은 무자비하게 시위투쟁을 진압하며 수많은 로동자들을 강제련행하고 부상을 입히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대표는 우리는 생존권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웨치면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우리들을 경찰은 몽둥이로 대하고있다.》고 분노를 터치였다.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지금 전역을 휩쓸면서 가뜩이나 궁지에 빠진 보수당국을 더욱 위기에 몰아넣고있다.

라 영 국

독단과 전횡이 빚어낸 몰락의 위기

최근 남조선보수패당의 극심한 위기와 관련하여 통치력마비라는 말이 많이 나돌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정권》말기에 이르러 통치력마비사태가 나타나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여왔다. 하지만 현 보수《정권》처럼 집권중반기에 그런 사태를 맞는것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한다.

얼마전 남조선의 여러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한데 의하면 올해에 들어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현 괴뢰집권자의 지지률은 현재 20%계선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20여년간 남조선에서 집권자에 대한 지지률이 이렇게 낮아지기는 처음이다. 이로하여 지금 괴뢰집권자의 통치력마비가 두드러지고 정국은 극심한 혼란상태에 빠지고있다.

하다면 왜 이렇게 되였겠는가 보기로 하자.

이전에도 그러하였지만 특히 요즘 남조선당국자가 내놓는 정책, 그가 하는짓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민심의 비난대상이 되고있다. 커다란 물의를 일으킨 세금문제와 청와대개편, 《문고리 3인방》처리문제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그것들이야말로 독단과 전횡, 불통정치로 악명높은 현 괴뢰집권자의 본색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지난해말 남조선당국자는 세금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것이 민심은 안중에 도 없이 독단적으로 꾸며낸것이여서 큰 비난거리가 되였다. 급기야 당국이 보완대책이라는것을 내놓았는데 오히려 불는 불에 키질하는 격이 되였다. 각계는 현 집권세력이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의 세금은 증가시키는 정책으로 사회적론쟁거리를 야기시키고는 병주고 약주는 식의 대책을 들고나와 민심을 우롱하려 한다고 반발해나섰다.

이렇게 각계가 당국의 정책을 어느 정도에 이르렀겠는가 하는것은 묻지 않아도 뻔하다.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새누리당》은 저들과 사전협의없이 설익은 세금정책을 발표하여 론난을 일으켰다고 청와대를 향해 볼부은 소리들을 늘어놓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남조선당국자는 고집스럽게 계속 독단을 부리였다. 이번에는 인사개편문제로 소란을 일으켰다.

지난 1월 23일 청와대인사개편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미전부터 야당을 비롯한 각계가 정윤회국정개입사건과 련관된 집권자의 최측근들인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문고리 3인방》을 해임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여왔다.

하지만 남조선집권자는 김기춘을 떼버리고 불통의 본산인 청와대를 쇄신할데 대한 민심의 요구에 《소통이 잘되고있다.》는 왕청같은 수작으로 대답했는가 하면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는 《내 새끼들이다.》, 《교체할 리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와대인사개편에서 이자들을 모두 류임시키였다. 지어 《국회》와의 소통역할을 한다고 하는 정무특보단까지 자기 앞잡이들로 꾸릴 기도를 드러냈다. 이것은 그야말로 도전적이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은 집권자가 청와대인사개편을 통해 또다시 독단과 전횡을 부린것은 얼마 안되는 지지자들마저 불만을 품게 하였다고 평하였다. 남조선 각계도 《최악의 인사》, 《독단적인 인사》, 《불통의 극치》로 단죄규탄하였다.

민심이 얼마나 험악했던지 《새누리당》패들마저 청와대가 정책은 물론 인사문제에서도 저들과 사전협의를 할것을 주장해나섰다. 지금껏 현 집권자의 눈치만 살피며 그와 적극 보조를 맞추어온 《새누리당》이 이 정도이니 민심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괴뢰집권자가 공약하였던 《복지》와 《경제민주화》는 이미 사라진지 오랜데 인민들의 어깨우에 쌓이는것은 세금부담이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것은 독단과 전횡뿐이다. 그러니 이전에 현 집권자에게 미련을 품고 그를 지지하던 사람들까지 배신감을 느끼며 너도나도 반기를 들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이제는 현 《정권》의 고정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이상 집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로 하여 그의 통치력마비사태는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전망하고있다.

지금 괴뢰보수패당이 《정권》 유지에 비상신호등이 켜졌다고 아우성치면서 사태를 수습한다 어쩐다 하며 부산을 피우고있지만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남조선 각계가 한결같이 평하듯이 현 괴뢰보수정권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였다.

남조선의 복잡한 현 정치정세는 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민심을 거역하며 독재통치를 일삼는자들은 절대로 편안할수 없으며 반드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장 윤 남

제2의 룡산참사를 예고하는 위험한 철거소동

6일 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구룡마을주민들이 자치회관을 강탈하려는 구청당국에 맞서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구청당국은 부당한 구실을 대고 회관사용을 불법으로 몰아 4일까지 자체로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당국이 마을의 상징인 회관을 철거하려는것은 재개발을 위해서라고 까밝히며 항의하였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청당국이 6일 400여명의 직원들과 100여명의 철거반깡패들을 내몰아 무분별하게 철거소동을 일으켰다.

철거에 동원된자들은 항거하는 주민들을 마구 폭행하면서 란동을 부렸다. 수백명의 파쇼경찰들까지 투입되여 철거현장을 둘러싸고 주민들을 위협하였다. 무지막지한 폭행으로 부상자가 났다.

이날의 광경은 6년전 룡산참사를 방불케 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2009년 1월 리명박역적패당은 서울의 룡산에서 재개발의 명목으로 주민들을 아무런 이주대책도 없이 한지로 내쫓았다.

이에 항의하여 주민들이 건물옥상에 올라가 롱성투쟁을 벌리자 괴뢰패당은 파쇼경찰을 내몰아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던 끝에 5명의 주민을 불태워죽이고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오늘 괴뢰역적패당에 의해 이러한 참사가 계속 빚어지고있다.

괴뢰패당은 지난 1월 31일 해군과 경찰, 깡패들을 포함한 1 000여명의 폭압무력을 투입하여 제주해군기지건설에 항의하는 롱성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하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하였다.

모든 사실은 괴뢰당국의 반인민적 악정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룡산참사는 언제든지 빚어질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월 23일 《내란음모없는 대법원의 내란음모사건 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이전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하혁명조직》이란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내란음모혐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내란선동혐의가 있기때문에 유죄라고 판결한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난하였다.

내란음모가 없는데 어떻게 내란을 선동할수 있는가고 하면서 사회 각계에서 법원이 권력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고 이번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이 계속되고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 땅의 국민들은 언제까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야만의 시대에서 살아야 하는가고 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51025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